상월선원 시즌2 '인도 만행' 본격화

5월 21일 결사 계획 발표해
11월 17일~12월 31일 진행
인도 · 네팔 성지 도보로 순례
하루 30km… 1080km 걸어
사부대중 참가하는 '열린결사'
단원 25명 규모… 방부 접수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지난 겨울 한국불교 중흥을 위해 진행된 상월선원 천막결사가 인도 만행으로 새롭게 이어진다.

상월선원 총도감 호산 스님(조계종 중앙종회 사무처장)과 지객 원명 스님(조계사 부주지)은 5월 2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상월선원Ⅱ 만행결사' 계획을 밝혔다.

호산 스님과 원명 스님에 따르면 '상월선원Ⅱ 만행결사'는 오는 11월 17부터 12월 31일까지 45일 간 인도와 네팔의 부처님 성지인 녹야원 · 부다가야 · 룸비니 등을 도보로 순례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순례 입재는 초전법륜지인 바라나시 녹야원에서 진행되며, 입재식 이후 도보로 사르나트를 거쳐 8일 간 부처님 정각지 부다가야로 걸어가게 된다. 부다가야에서 2일 간 머물면서 마하보디 대탑과 한국에서 건립 예정인 분황사를 순례한다. 라자기르로 이동한 결사 대중은 〈법화경〉이 설해진 영축산을 3보 1배로 오를 예정이다. 이후 세계평화탑이 있는 바이샬리와 부처님 열반지 쿠시나가르, 탄생 성지 룸비니를 도보 순례하고, 쉬라바스티 기원정사에서 만행을 회향하게 된다. 도보로 도착하는 성지에서는 부처님 유적 등을 순례하며 정진하는 시간들도 가질 예정이다.

'상월선원Ⅱ 만행결사'의 총 순례 거리는 1080km로, 하루 평균 30km를 걸어서 이동해야 하는 대장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스님들이 공개한 '상월선원Ⅱ 만행결사'의 하루 일정은 빈틈없다. 결사 대중은 오전 3시 30분에 기상해 3시 40분 새벽 예불로 하루 일정을 시작한다. 예불 이후에는 오전 4~6시까지 휴식 없이 걸으며, 6~7시까지 아침공양과 휴식이 이뤄진다. 오전 7~11시까지 이뤄지는 걷기 정진은 50분 걷기 정진과 10분 휴식으로 진행된다.

이후 오전 걷기 정진을 마치면 오후 2시까지 점심공양과 휴식이 이뤄지며 휴식이 끝난 후 오후 5시까지는 걷기 수행이 이뤄진다. 오후 6시 30분 저녁 예불 후에는 9시까지 개인 정진의 시간을 갖고 9시 30분 취침에 들어간다. 하루 동안 10시간 가량을 오롯이 걸으며 부처님의 삶과 가르침을 체현하는 것이다.

이 같은 '만행결사'는 출가, 성도, 전법, 열반의 길을 따라 부처님의 발자취를 친견하고 가르침을 되새기자는 상월선원 회주 자승 스님의 발원으로 시작됐다.

총도감 호산 스님은 "상월선원 천막결사 해제가 다가오면서 회주 자승 스님과 필담을 나눴는데 스님의 필담 요지는 '한국불교는 수행 정진이 중심이 돼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래야 수행가풍 진작 · 불교 중흥 · 대한민국 화합 · 세계평화 실현이라는 상월선원의 4대 결사 정신이 구현될 수 있음을 강조하셨다"면서 "이번 만행결사는 수행하는 불교, 사부대중이 함께하는 열린 불교, 세상과 함께하는 불교라는 상월선원 결사 정신을 확산하고 한국불교 미래상을 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부처님 7대 성지를 순례하는 '상월선원Ⅱ 만행결사'의 중요한 특징은 사부대중이 모두 참여할 수 있게 된 점이다. 이 역시 "상월선원 결사의 실현은 사부대중이 함께 참여하는 정진으로서 이뤄질 수 있다"는 자승 스님의 평소 지론이 반영된 것이다.

현재 방부를 받고 있는 상황이며, 결사 대중은 총 25명(비구 스님 15명, 비구니 스님 5명, 우바새 · 우바이 5명) 규모로 구성될 예정이다. 일정이 빡빡하고 강행군인 만큼 건강에 이상이 없어야 하며, 70세 이하로만 참여가 가능하다.

지객 원명 스님은 "방부 신청 대중이 많아질 경우 논의를 통해 결사 대중 규모를 확대할 수도 있다"면서 "45일을 모두 참석하기가 어려운 사부대중을 위해 중간 합류 지점들을 정해서 1~7일을 함께 정진하는 방안도 열어놓고 있다. 추후 일정에 대한 세밀한 조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확산이 현재와 같이 세계적으로 지속될 경우에는 만행결사를 내년으로 연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참여 의사를 밝힌 대중은 총도감과 지객 소임을 맡게된 호산 스님과 원명 스님을 비롯해 1차 천막결사에 참여한 도림 스님, 유승 스님(조계종 前 재무부장), 정충래 동국대 이사이다.

기자간담회에 함께 자리한 유승 스님은 "마음이 게을러지면 인도를 찾곤 했다. 부다가야에서는 10만배 절 수행을 한 적도 있다. '언젠가 부처님 성지를 도보 순례하며 부처님 발자취 위에 내 발자국을 포갰으면 좋겠다'는 발원을 세웠는데 이 발원이 이뤄졌다"면서 "이미 하루에 10km씩을 걸으며 결사 동참을 준비 중이다. 내 수행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고 기쁘게 참여하려 한다"고 말했다.


대행 선사 영전에 이사장 혜수 스님이 헌향하는 모습

"드높았던 중생 제도 원력 계승"

한마음선원, 5월 23일
대행 선사 추모다례재

'한마음 주인공 관법'이라는 생활선 수행으로 중생 교화에 힘쓴 묘공당 대행 선사(1927~2012)의 가르침을 되새기고 선양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재단법인 한마음선원(이사장 혜수)은 5월 23일 한마음선원 안양본원에서 '묘공당 대행 선사 8주기 열반 다례재'를 엄수했다. 코로나19 관련지침에 따라 다례재에는 한마음선원 문도 스님을 중심으로 국내외 25개 지원 신도 임원 500여 명만이 참여했다. 김재진 현대불교신문 대표와 이선재 BBS불교방송 사장 등 교계 언론사 대표들도 참석했다.

다례재는 한마음선원 이사장 혜수 스님과 안양본원 주지 혜솔 스님, 광명선원 주지 청백 스님을 비롯한 선원 스님들의 헌다와 헌화, 헌향으로 시작됐다. 또 본원과 각 지원 임원들도 각령전에 헌화를 하며 추모의 뜻을 더했다.

이사장 혜수 스님은 "이 자리 함께하고 싶은데 하지 못한 많은 신도들이 많다. 모두 고마운 마음 뿐"이라며 "선사께서는 많은 이들이 자기 근본을 의지하여 자유인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다. 앞으로도 대행 선사의 가르침을 전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다례재에서는 '천도재'에 대한 스님의 가르침을 주제로 제작한 추모영상이 공개됐다. 특히 영상 중간 중간 삽입된 대행 선사의 생전 법문은 잔잔한 감동을 선사했다.

한편 이날 다례재는 유튜브 스트리밍으로 대중에 공개됐다. 노덕현 기자

코로나19 · 장애 편견 넘어선 공감의 법석

보리수아래, 5월 20일
'제13회 연꽃들의 노래'
장애시인들 자작시 공연


'손가락 시인' 정상석 씨의 어머니 김종갑 씨가 아들에게 쓴 편지를 낭독하고 있다.

"세상의 누구보다 꿈 많고 포부가 크던 내 아들, 5월의 푸른빛이 눈부시구나. 장애로 인해 하루하루 지쳐가는 너의 모습에 엄마는 가슴이 너무 아프지만 너의 인생은 푸른 5월 같기를 오늘도 기도한단다." (사랑하는 아들 상석에게, 김종갑)

장애를 가진 아들에게 전하는 편지글에 어머니의 사랑이 담뿍 묻어났다. 김종갑 씨의 아들은 뇌병변장애를 갖고 있다. 거동이 쉽지 않은 몸을 바닥에 뉘인 채 손가락으로 컴퓨터 자판을 눌러 아름다운 시를 만들어내는, 그래서 '손가락 시인'이라고도 불리는 정상석 시인이 그 주인공이다. 어머니 김종갑씨는 담담한 목소리로 편지를 낭독했고, 관객석 곳곳에선 훌쩍이는 소리가 이어졌다.

5월 20일 서울 불교역사문화박물관에서 열린 '제13회 보리수아래 핀 연꽃들의 노래'는 감동과 눈물, 웃음과 박수가 한데 어울린 공감의 장으로 펼쳐졌다. 특히 정상석 시인의 어머니 김종갑씨가 낭독한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는 한구절 한구절, 장애인과 장애가족을 둔 이들에게는 깊은 공감과 위로를, 다른 이들에겐 이해와 감동을 선사했다.

김종갑 씨의 낭독에 앞서 박심원 목사의 부처님오신날 축하시 '향기와 생명, 그리고 섬김' 낭독도 진행됐다. 박 목사는 축시에서 부처님 오신 뜻을 기리며 종교적 논리를 넘어 그 뜻을 함께 나누고 실천하겠다는 마음을 전해 박수를 받았다.

광림사 연화원 이사장이자 보리수아래 고문 해성 스님은 '내가 있어 여러분이' 곡을 수어로 선보였다. 스님은 "코로나로 힘들고 지친 마음을 다독이기 위한 자리가 마련돼 감사하다"며 "세상의 소리, 마음의 소리를 아름다운 글로 옮겨 세상을 맑히는 보리수아래 회원 여러분 모두가 멋진 포교사들"이라고 격려했다.

이번 행사를 주최한 보리수아래(회장 최명숙)는 불교와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장애인 불자들의 모임이다. 매년 부처님오신날 즈음 '보리수아래 핀 연꽃들의 노래' 행사를 열어 1년간 장애불자들이 쓴 시를 노래와 음악, 낭독으로 선보였다. 올해 행사는 코로나19 사태 속 쉽지 않은 여건에서 열린만큼 '동행, 코로나19의 어려움을 넘으며'를 주제로 열렸다. 특히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해 자리 배치 시 관객간 거리를 넓히는 등 방역 기준을 준수하는 가운데 진행됐으며, 관객을 최소화한 대신 유튜브, SNS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대중에 공개됐다.

최명숙 보리수아래 회장은 여는 말에서 "여건상 많은 분들을 현장에 모시진 못했지만 모두의 마음이 서로에게 닿을 것으로 믿는다"고 전했다.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서울 중심에 불교전문교육도량 개원

안심정사, 5월 17일 법회
'불교문화교육센터'로 운영
종단 주요인사 대거 참석



서울도심의 중심 강남에 불자들의 기도와 신행, 교육을 총체적으로 이끌어 갈 부처님 도량이 우뚝 섰다. 안심정사 서울도량이 이전 개원한 '안심정사 서울본부'〈사진〉는 1991년 논산 본찰을 시작으로 전국 각지 분원에서 기도와 나눔을 통해 중생의 삶을 변화시켜 온 안심정사가 향후 불교전문 교육도량으로서 위상을 드러낼 토대가 될 전망이다.

안심정사(회주 법안)는 5월 17일 강남대로 6길(양재동)에 위치한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의 안심빌딩에서 서울도량 이전 · 개원법회를 봉행했다. 새롭게 문을 연 서울 안심정사(주지 혜신 전법사)는 '불교문화교육센터'로서 지역분원을 넘어선 교육전문도량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총건평 395평의 안심빌딩은 모든 층에 부처님을 모신 전각의 형태를 갖췄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다. 옥상인 6층에는 산신각이, 5층은 약사전 · 좌선당, 4층은 대웅전 겸 설법전, 3층은 지장전 경 염불당이 들어섰다. 2층은 강당 겸 공양실로, 1층은 종무실 겸 상담실로 운영된다.

법안 스님은 "불사에 동참 해준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전한다"며 "오늘 개원법회를 기점으로 안심정사 서울본부 겸 불교문화교육센터는 좋은 기도와 프로그램으로 불자들을 맞이해 한국불교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지희 기자

